

성희롱 의혹에 업무방해 혐의까지... 최강욱 '사면초가'

20일 조국 아들 인턴경력확인서 허위작성 혐의 항소심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여보좌진·의원 성희롱 의혹도 잇달아... **최 전면부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당내에서 쏟아지는 각종 성희롱 의혹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인턴경력확인서 허위작성 혐의로 항소심까지 앞두고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20일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주 대학원 입시업무 방해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실제로 인턴으로 활동했기에 확인서를 써 줬다"는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 12분 동안 마무리며 수행할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국회법상 피선거권을 잃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국면에서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 씨 인턴확인서 허위작성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발언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선거법 위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혐의도 부인하며 국민의힘 고발 사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여성 보좌진·의원 성희롱 의혹에도 휩싸였다.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지난 2일 최 의원이 여성 보좌진도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한 발언은 '짤방이'가 아닌 비슷한 발음의 성희롱성 발언이

라고 판단했다. 또 13일 최 의원에게 입장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냈다.

앞서 12일 SBS는 최 의원이 지난달 26일 여성 의원·보좌진들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대기하던 중 동료 의원들을 지칭하며 성적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최 의원에 의하면 SBS 기자는 최 의원

보좌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최 의원이 다른 의원들과 농담하다 'OOO 의원은 OOO 의원과 살을 부비면서 비명 지르는 사이다'라고 했다는 제보가 있다. 여러 차례 여성 보좌진의 몸매·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최 의원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

다. 그는 12일 자신의 SNS에서 "저는 26일 안전조정위원회가 아니었고 언급된 의원들은 위원이었다. 당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국힘(국민의힘)에 의해 심각한 대치가 있었던 바로 그 날인데 대기 중에 저렇게 말했다고 한다"며 "두 가지 모두 악의가 느껴지는 날조다. 한 번 재미를 봤으니 계속해서 이참에 숨통을 끊겠다는 뜻이나"고 비난했다. 또 "당에서 직권조사를 실시하면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성희롱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태다. 민보협은 각종 성희롱 의혹 관련 증거자료들을 정리해 당 지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보협은 12일 입장문에서 "최 의원과 관련해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차차 공개적으로 밝히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확인했고, 더 큰 성비위 문제도 보고받았다"며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가 됐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실망이 크다. 민보협은 민보협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적극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오주환기자 jhoh@skyedaily.com

전여옥, 운동권 저격... "민주당은 왜 'M번방' 됐을까"

연이은 민주당 성추문은 "운동권의 흑역사" 때문
박지현 "이준석 징계" 요구 맞대응... '물타기' 비판

박완주 의원 성비위 의혹 등 각종 성폭력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시끄럽다.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요구 맞대응에 '물타기'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전여옥 전 의원은 민주당 내 586운동권 세력을 비판하면서 자숙을 요구했다.

15일 전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지난 12일 하루에만 다섯 건의 성추문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재앙의 날'이었다. 그 정점은 당 중진인 박 의원 제명 처리였다"며 "앞으로 터질 것까지 민주당 성추문 공간은 '풍성'하다 한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의 지속되는 성추문 원인으로 는 운동권을 지목했다. 전 전 의원은 "박

원순·안희정·오거돈·박완주·최강욱·김OO 또 연락두절인 OO 의원까지 대체 왜 이럴까"라며 "저는 '운동권의 흑역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왜 'M번방'이 됐을까. 바로 좌파운동권 남성 권력의 '성(性)의 공유' 운운하는 사기 행각 때문"이라며 "밤하늘의 폭죽처럼 마구 터지는 민주당 성추문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기막힌 것은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여성의원들"이라고 일갈했다.

13일 박 위원장은 경기 수원의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박 의원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제명 등 빠른 조치를 취했지만 국민의힘



전여옥 전 의원.

뉴스1

은 이 대표의 성상남 의혹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에 공직자 비리 척결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습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라며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한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이 사안은 이 사안이고 그 사안은 그 사안이다. 서로 연동하는 순간 물타기가 되기에 그렇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 문제는 국민의힘에 맡겨 두고 민주당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뒤에 돌아다 보라"고 비판했다.

노태하기자 thnoh@skyedaily.com

경찰 "대통령 집무실 대규모 집회 금지"

무지개행동 대규모 집회... **경, 서울행정법원에 항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처음으로 도보 행진이 이루어졌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으나 경찰은 이 지역에 신고되는 다른 집회에 대해선 금지통고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여전히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불허하는 중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성소수자차별반대 단체 무지개행동 등은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으로 용산역 광장에서 '싸우는 몸'·'분노의 외침·권리의 연대'를 주제로 기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본 집회 후 오후 4시55분쯤 행진을 시작으로 오후 5시27분쯤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에 진입했다.

서울행정법원이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

용하면서 이날 대규모 행진이 성사된 것이다. 경찰은 법원 결정으로 성소수자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의 집무실 100m 이내 행진은 법원이 조건부로 인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달 19일 기념대회와 함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까지 행진하기로 하고 신고했다. 경찰은 금지통고 처분했다.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경찰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후 집회·행진 금지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에선 기자회견과 1인 시위만 할 수 있다.

장혜원기자 hjyang@skyedaily.com

너희 집? 나의 집?
아니예요!
우리모두의 집이래요!
우리집 바닥은
이웃의 천장이니까요.

층간소음 예방교육
www.noisedu.com